

종합·해설

김재정씨 고소 취소 거부...李 득실은?

명분·실리 잃고 검찰 수사도 못막아

李 “제2의 김대업사태 없게 취하 권유했는데...”

논란 원점으로...朴·범여 비판 역풍 거세질 듯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11일 이 전 시장 처남 김재정씨가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도록 김씨에게 권유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한 고소 취소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으며,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대표 측이 이 전 시장 측의 ‘취소권 유·거부’ 해프닝을 ‘국민 우롱’이라고 비난하는 가 하면, 범여권도 ‘이 전 시장 측의 고소 취소 방침은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전 시장 측 고소취하 권유=이 전 시장 캠프의 박희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 고소 취소문제를 협의했으며 그 결과 고소인 측이 취소하도록 권유키로 결정했다”면서 “캠프 선대위도 당내에 있

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당 검증위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초 (후보 간) 약속이었다”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검증위에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캠프 내 (고소 취소 권유) 반대 의사가 상당히 강했다”고 전한 뒤 “그러나 이번 명예훼손 사건도 조기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지난번 대선 패배를 가져온 ‘김대업식 수사’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취소 권유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거부=그러나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소인들(박근혜 경선후보 측 유승민·이혜훈 의원, 서청원 전 의원, 경향신문)이 공개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저와 쉼다스가 고소한 것은 피고소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무근이고 스스로 결백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과 회사 지분은 평생 열심히 일해 일군 제 재산이며 이를 날탈이 소멸할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9년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모두 제 재산이며 단 1%도 이 후보와 관련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수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의 득과 실=이 전 시장 측이 고소·고발 취소를 권유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제2의 김대업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사실 이 전 시장 캠프에서는 이 전 시장과 친인척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대선정국에서 중대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자칫 검찰수사가 정략적으로 변질될 경우 회복이 힘들 정도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형국이 됐다. 취하 권유에 따른 ‘의혹을 피해 가려한다’는 비판 역풍은 계속 받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막지도 못한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 “호남 지지받는 사람 대통령 돼야”

“부동산 의혹 없어... 검찰 조사 당당하게 받을 것”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1일 박근혜 전 대표와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의혹은 복잡하지도 않고 없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광주 5·18 기념 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지역 선대위 발족식 전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든 검증위 조사든 똑같이 당당하게 받을 생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불필요한 사람들을 자꾸 끌어넣어서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본인인 나에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주위의 친인척을 무자비하게 관련 있는 것 같이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선대위의 고소 취소 권유 결정으로 인해 지지를 하락 등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주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사 직후에 자신의 처남 김재정씨가 박근혜 후보 측 의원들에 대한 고소 취소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기업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게 놔두어야 자꾸

억울하게 하나가 그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광주지역선대위 발대식에서 “호남에서 지지받는 사람이 대통령(후보)가 돼야한다”며 “그렇게되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남을 부추겨 영남표를, 호남을 부추겨 호남표를 얻는 지도자는 더 이상 나와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당원 및 지지자 1천여명을 비롯해 정의화 의원, 전석홍 선대위 부위원장, 이균범 전 동신대 총장, 한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1일 광주를 방문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서구 양동시장을 찾자 상인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檢, 검증공방·명예훼손 전방위 수사

김재정씨 고소인 자격 오늘 소환 통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11일 이 캠프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금까지 해오던 수사 일정과 계획, 방침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됐다”며 “조만간 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12일 나와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 측은 건강상 이유로 13일째 조사받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당초 김씨가 고소를 취소

할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속 수사할지 등을 대검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은 고소 취소와 무관하고 일반적으로 선거 관련 명예훼손은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과 연관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속하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나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가 박 전 대표의 사과가 없으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김씨를 둘러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의 부동산 거래 및 전입·전출 여부와 이 전 시장의 전과 기록 등 개인 정보가 어느 국가기관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유출됐는지, 고소 과정에서 양측간 오간 검증 공

방이나 설전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김씨 주변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 전산망 접속 기록은 제출하면서도 지적(地籍)전산망 접속 자료 제출을 난색을 표명해 한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검토했으나 지적전산망 접속 자료도 수일 내 자진 제출 받기로 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검찰이 이 후보와 관련 상응, 처남 등 10명의 부동산 정보를 누가 조회했는지 접속 기록을 달라고 해 권한 밖의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박근혜 전 대표
故 장준하 유족과 화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70년대 대표적 민주 인사였던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을 만나 ‘역사적 화해’를 모색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일원동의 한 아파트로 고인의 부인인 김희숙(82)여사를 찾았다. 그는 김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장준하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니 진심으로 위로 드린다”고 인사를 건넸고 김 여사는 “오늘 만났으니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또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고 박 전 대통령 시절 고통받았던 분들에 대한 보상은 진정된 민주주의의 국가 달성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실패 주장이 대통합 걸림돌”

강운태 전 내무장관

대선 예비후보인 강운태 전 내무부 장관은 11일 “참여정부를 높이 평가하며 참여정부의 범동을 이어받아 대통합 범여권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12월 대선은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참여정부 계승·발전론과 참여정부 실패론이 맞붙을 수밖에 없는데 참여 정부가 실패했다면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범여권 통합의 걸림돌은 참여정부 실패론과 특정세력 배제론”이라며 “참여정부 실패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여권 유력

후보임을 자처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나아가 “참여정부는 현재 인기도 없고 지지도도 낮지만 역사의 큰 맥락에서 보면 할 일을 제대로 한 정부”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지난 10년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성공한 10년’으로 미래를 준비할 알찬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 원칙으로 ▲국민과 참여정부 정신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의 참여 속에 ▲후보자 중심이 아닌 정당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분당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선 예비후보인 강운태 전 내무부 장관이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일시 : 주중반: 2007.8.10(금)
• 주말반: 2007.8.11(토)
• 모집기간 : 7.9(월)~8.10(금)
• 수업기간 : 2007.8.10~11.16(4개월/15주)
• 수강료 : 250,000
모집인원: 1단계 주중/주말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 (매주 금, 토)09:10~14:30(5강좌)
수료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예)
• 전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 주택관리사 12차(월~토) 시험일: 10월28일
▶ 주택관리사 12차(월~토) 시험일: 10월21일
▶ 주택관리사 2차(화계포탈) 주말반(토,월) 시험일: 10월21일
모집대상
▶ 훈련도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예정 이직인 분
▶ 성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직분 40세 이상이신 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단시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액제 모집
▶ 수료후 100~80% 환급
접수
▶ 수강일자 : 훈련생당→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입력 유틸과-
모집과정
▶ 정보화기초과정 윈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틸리티활용
▶ 정보화기초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모집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기타사항
▶ 수료후 100% 환급
접수
▶ 수강일자 : 훈련생당→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수업시간
▶ 월수금 19:00~21:00(가조) ▶ 화목 19:00~21:00(가조)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검찰서 옆 ☎224-4560, 232-1088

7.9 공무원 특강
행정직, 교무직, 세무직, 관공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복지직, 전산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시행처
▶ 전남행정직: 10월 13일 7급 23명 9급 193명 확정
▶ 전남교육행정직: 올 하반기 000명 시험 예정
▶ 전북차 9급행정직 109명 9월 8일 시험
개강
7월 18일 주야반모집 (한자·영어 필수)
= 無等은 선배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
www.mdgosi.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7월 2일 첫진도 개강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 기본서 핵심요약으로 심화과정 이해
•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한 출제 포인트 이해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7도청 앞 전일빌딩 위)
점단점 ☎ 971-0002 (빅마루 점단점 앞 광우은행 4F)
광양점 ☎ 795-0990 (광양시 중앙로 49)
광주고시학원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공공공무원
개강 8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34-0234 (전직종 첫진도=사면이력접수중)